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2. 22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/ 서기관 이덕희 (Tel.044-200-2397)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/ 사무관 지사향 (Tel.044-200-2912)
* 엠바고 : 2.22(수) 14:00 이후 사용 * 토론회 논의 결과는 사후브리핑(2.22(수) 17시/서울청사 브리핑룸)에서 설명			

‘터놓고 이야기 합시다! 규제개혁’

- 황교안 권한대행, ‘터놓고 이야기 합시다! 규제개혁 국민토론회’ 주재
- 중소기업인들을 옥죄는 숨겨진 현장 규제애로를 가감 없이 듣고 함께 논의,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약속

< 주요내용 >

- 정부는 2.22(수)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중소기업인·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‘터놓고 이야기 합시다! 규제개혁 국민토론회’를 개최하였다.
 - 이 날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이와 함께 2.22(수)을 ‘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’로 정해 ‘기업·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(행정자치부, 경남 진주)’, ‘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(중소기업 읍부즈만, 경기 안산)’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.
- 토론회에서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사례*를 중심으로 실제현장에서 느낀 규제애로에 대해 참석자와 권한대행 및 정부 관계자들간의 활발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 졌다.
 - * 1.19(목)~2.16(목) 한 달 여간 총 988건 접수, 이중 규제건의는 449건(45.4%)
 - * △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△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 항목 삭제 등
-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과제 및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행사 종료 후 부처검토·협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고, 추진상황은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을 통해 실시간 관리·공개할 계획이다.
- 한편, 토론회 진행 중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(약 17조 4천억원, 국조실·KDI 공동검증) 및 주요 현장 체감사례 등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도 소개되었다.

- 정부는 2.22(수)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‘터놓고 이야기 합시다. 규제개혁 국민토론회’를 개최하였다.
- 그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‘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’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왔으며,
 - 특히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부임(‘15.7월)한 이후 ‘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’를 신설,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,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.

<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실적 >

구 분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	8차
개최일	’15.7.30	’15.10.20	’15.12.3	’16.2.23	’16.4.27	’16.6.22	’16.8.31	’16.10.20
개최지	경기 안산	광주	부산	대전	대구	원주	인천	경기 화성

- 황 권한대행은 ‘17년 신년 기자회견(1.23)에서도 우리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4가지 방향* 중 하나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.

* ①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②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③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④ 과학기술과 ICT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

- 금일 토론회도 최근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‘16.12.28(수)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’에 이어서
 -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이 날 토론회에는 ‘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(1.19 ~2.21, 중소기업인편)’에 참여한 중소기업·일반국민 등 1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권한대행 및 패널*,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.

* 중소기업 음부즈만 김문겸 교수, 박혜린 음니시스템 대표

- 이와 함께 2.22(수)을 ‘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’로 정해
 - ‘기업·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(행정자치부, 경남 진주)’, ‘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(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)’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.
 - ※ 상세내용 :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배포 보도자료 참조
-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관련 ‘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’ 결과와 국민과 함께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

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

- 1.19(목)부터 2.16(목) 현재까지 ‘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’ 결과 총 988건이 접수,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449건(45.4%)으로 집계
 - * 단순민원 등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제안은 539건(54.6%) 차지
 - 이번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사례를 분석한 결과, 그간의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△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, △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, △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,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△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
 - △카드수수료 인하 30건, △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, △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16건, △식품업 관련 규제완화 12건, △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
 - 다만, 제안된 건의 중 이미 정부에서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, 현장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임
-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2개월 이내(4월말까지) 직접 통보하고,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 (www.better.go.kr)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

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주요 성과

-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(14.3월) 이후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결과, '16.12월까지 약 7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
 - KDI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,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, 17조 4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제로 규제개혁은 곧 민생임을 반증하였음
 -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규제 3,850건(16.12월 기준) 중 70% 이상이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으로 나타남
 - 특히 3년 동안 해결된 규제 3,850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부터 15년간 해소된 규제건수인 3,665건보다 많은 수치로
 -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4일 이내 실·국장 답변 의무 부여, 3심제* 검토 등을 통한 甲(공무원)과 乙(국민)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었기 때문임
 - * 부처답변 → 총리실 소명조치 →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
 - 지난 2년여간 국무조정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증규제*와 공공조달규제** 개선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부분(15년 중소기업 읍부즈만 조사)을 해소한 것임
 - * 모든 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·중복 인증 36개 폐지, 과도한 인증 77개 개선
 - ** 공공조달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진입장벽 철폐, 절차폐지 등 139건 과제 개선
-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임